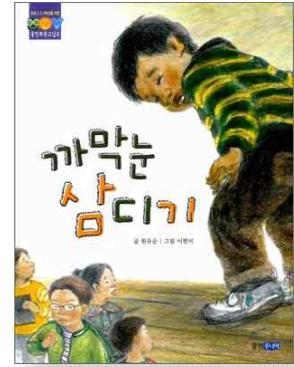


까막눈 삼디기



★ 핵심 주제

- 이해 • 배려 • 감사

★ 활용 학년 및 성취 기준

	1-2학년군
성취 기준	[2국02-03]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확인한다. [2국02-04] 글을 읽고 인물의 처지와 마음을 짐작한다. [2국05-02] 인물의 모습, 행동, 마음을 상상하며 그림책, 시나 노래, 이야기를 감상한다.
	3-4학년군
성취 기준	[4국03-04] 읽는 이를 고려하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쓴다. [4국04-01] 낱말을 분류하고 국어사전에서 찾는다. [4국05-02] 인물, 사건, 배경에 주목하며 작품을 이해한다. [4국05-03]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여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고 표현한다. [4국05-04] 작품을 듣거나 읽거나 보고 떠오른 느낌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.

★ 온 책 읽기 활동

🌱 읽기 전	🍃 읽기 중		🍊 읽기 후
활동 주제	소제목	활동 주제	활동 주제
• 표지 살펴보기	까막눈 삼디기 심술보 삼디기 전학 온 아이 연보라 동그라미로 그린 얼굴 빵 점이 아니야 할머니, 동화책 읽어드릴게요 년 백 점이야	• 인물 파헤치기 • 인물 비교하기 • 고마운 마음 전하기	• 국어사전에서 낱말 뜻 찾기 • 상장 만들기 • 생각 나누기 • 기억에 남는 장면 그리기 • 뒷이야기 꾸미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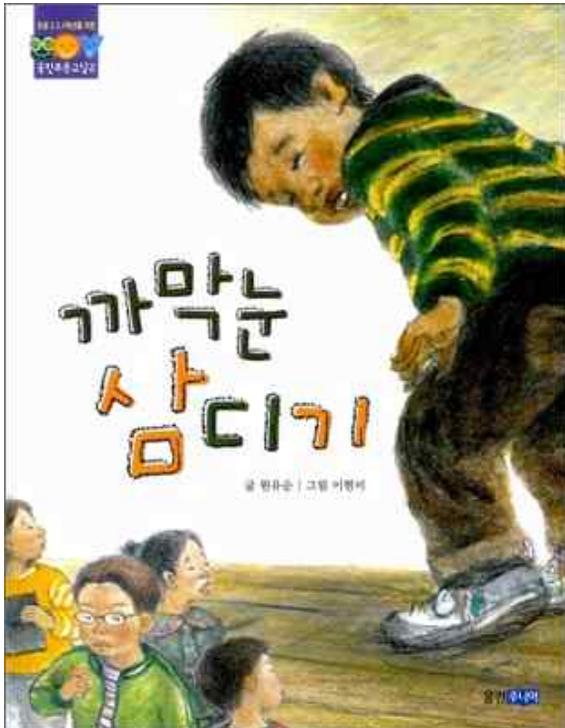
★ ‘까막눈’의 뜻은 무엇일까요? 뜻을 예상해 본 후 국어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봅시다.

예상한 뜻	예) 눈동자가 까만 눈 / 잘 보이지 않는 눈
국어사전에서 찾은 뜻	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의 눈.

★ ‘삼디기’의 본명은 무엇일까요? ‘엄’ 씨 성을 가진 주인공의 이름을 예상해 써 봅시다.

<p>“지는 삼디긴디유-”</p> <p>💡 "저는 삼디기인데요." 를 충청도 사투리로 말한 거예요.</p>	<p>엄 <input type="text"/>삼<input type="text"/><input type="text"/><input type="text"/><input type="text"/><input type="text"/></p> <p>엄 <input type="text"/>삼<input type="text"/><input type="text"/><input type="text"/><input type="text"/><input type="text"/></p> <p>엄 <input type="text"/>삼<input type="text"/><input type="text"/><input type="text"/><input type="text"/><input type="text"/>이</p>
---	---

★ 표지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이나 추측한 내용을 써 봅시다.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예) 삼디기는 조금 모자란 아이 같다. 예) 친구들이 삼디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. / 친구들이 삼디기를 따돌리는 것 같다. 예) 삼디기가 글자를 읽을 줄 몰라서 친구들이 삼디기를 무시하는 것 같다.
---	--

 읽기 중 활동	까막눈 삼디기 ~ 심술보 삼디기	학년 반 번
	인물 파헤치기	이름

★ ‘까막눈 삼디기’ 부분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.

물음	답
(1) 삼디기는 몇 살인가요?	아홉 살
(2) 삼디기의 본명은 무엇인가요?	엄삭덕
(3)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?	남에게 너그럽고 본보기가 될 만한 덕을 세 가지나 가지고 있다는 뜻
(4) 삼디기의 가정 환경은 어떠한가요?	아빠는 돌아가시고, 엄마는 소식이 끊어 할머니와 둘만 산다. / 가난하다. / 할머니도 글을 모르신다.
(5) 다른 아이들과 다른 삼디기의 특징은 무엇인가요?	2학년인데도 아직까지 글을 읽지 못한다.
(6) 삼디기의 별명은 무엇인가요?	까막눈

★ 수업 시간에 삼디기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찾아 쓰고,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서 써 봅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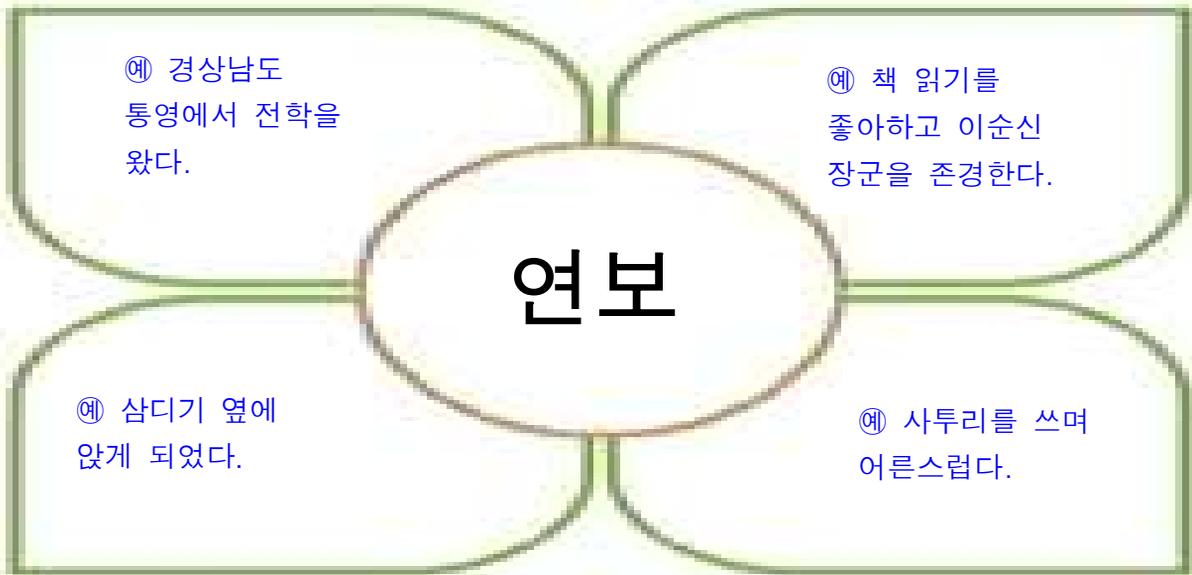
수업 시간에 삼디기가 하는 행동	그렇게 행동하는 까닭
예 장난질을 치고 필통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, 지우개를 자르는 등 손장난을 친다.	예 글자도 모르고, 수학 문제도 풀지 못해서 심심하기 때문이다.

★ 내가 만약 삼디기와 같은 환경에 처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상상해서 써 봅시다.

내가 삼디기와 같은 환경에 처했다면 예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, 가난한 것이 부끄러워서 학교에서 얄전하고 조용하게 행동했을 것이다. 또 선생님께 글자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열심히 글자를 익혀 까막눈에서 벗어날 것이다.
--

 읽기 중 활동	전학 온 아이 연보라 ~ 빵점이 아니야	학년 반 번	
	인물 비교하기	이름	

★ ‘연보라’는 어떤 인물인지 책을 읽고 알게 된 사실을 정리해 봅시다.



★ 현준이와 보라의 말과 행동을 통해 두 인물의 성격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여 써 봅시다.

현준이		보라	
말과 행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조장인 현진이가 삼디기 가방을 손으로 밀쳤어요. · “어어? 이것 봐, 참. 머리가 모자라는 아이는 할 수 없다니까.” · “칫, 컨트리 걸 주제에…….” · “야, 나는 유치원 때부터 영어 했대. 이 시골뜨기야.” · “야야, 관둬라, 관둬. 삼디기는 글 못 읽는다니까.” 	말과 행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“애들아, 안녕! 나는 연보라다. 앞으로 잘 지내보제이.” · “아아! 그렇구나. 너 집은 부자구나.” · “그만도라. 니가 참아야겠다.” · “심덕아, 글 안 배울래?” · “가만, 이거 봐. 삼디기 빵 점 아니다.” · “니들, 앞으로 삼디기한테 까막눈이라고 놀리지 마라.”
성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예 사람을 함부로 무시한다. · 잘난 척이 심하다. · 친절함이 부족하다. · 심술궂다. 	성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예 어른스럽다. · 화를 잘 내지 않는다. · 자존감이 높다. · 어려운 친구를 도우려 한다. · 배려심이 많다. · 용기가 있다.

읽기 중 활동	할머니 동화책 읽어 드릴게요 ~년 백 점이야	학년 반 번
	고마운 마음 전하기	이름

★ 삼디기가 한글을 다 익혔다 상상하고, 삼디기를 키워 주시고, 삼디기가 책을 읽어줄 때마다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할머니께 감사의 카드를 써 보시다.

💡 고마운 까닭, 고마운 마음이 잘 드러나도록 써 보세요.

④ 할머니!

아빠도 엄마도 없는 저를 사랑으로 키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할머니께서 예쁘다고 궁둥이를 두드려 주시고, 제가 책을 읽어 드릴 때마다 칭찬해 주셔서 제가 더욱 열심히 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

앞으로 더욱 효도하는 삼덕이가 될게요. 사랑해요.

엄삼덕 올림.

★ 삼디기가 한글을 다 익혔다 상상하고, 삼디기에게 책을 읽어주고 용기를 준 보라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편지를 써 보세요.

💡 받는 사람 - 첫인사 - 하고 싶은 말 - 끝인사 - 쓴 날짜 - 쓴 사람 순으로 편지글을 써 보세요.

④ 보라에게

보라야, 안녕? 나 삼덕이야.

네가 나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용기를 주어서 내가 드디어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. 받아쓰기 빵 점이 아니라고 말해 주고, 글도 가르쳐 주어서 정말 고마워. 넌 친구지만 정말 멋진 선생님이기도 해.

앞으로도 우리 친하게 지내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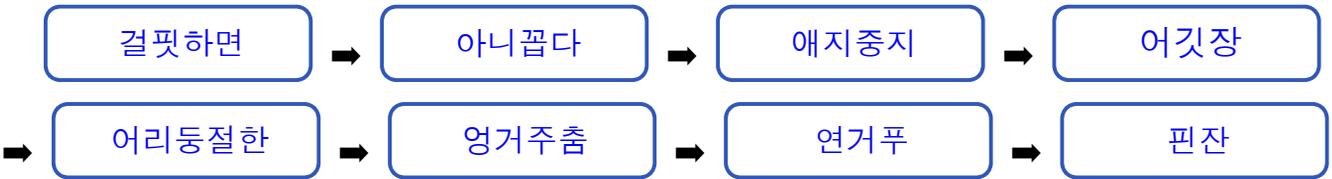
2021년 5월. 삼덕이가.

 읽기 후 활동	국어사전에서 낱말 뜻 찾기	학년 반 번
		이름

★ 다음은 「까막눈 삼디기」에 나오는 낱말들입니다. <보기>의 낱말들을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.

<보기>	연거푸	애지중지	걸핏하면	어리둥절한
	영거주춤	아니꼽다	어깃장	핀잔

(1) 국어사전에 낱말이 실리는 순서대로 써 봅시다.  국어사전에 낱말이 실리는 순서를 떠올려 보세요.



(2) 이 글에 쓰인 다음 낱말들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.  모양이 변하는 낱말은 기본형으로 찾아야 해요.

“엄삼덕! 엄삼덕!” 선생님께서 <u>연거푸</u> 두 번이나 부르셨는데도,	연거푸	잇따라 여러 번 되풀이하어.
삼디기는 아빠가 마흔이 넘어 얻은 아들이라고 참으로 <u>애지중지</u> 하셨대요.	애지중지	매우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모양.
은지는 공부도 잘 하고 똑똑한 아이였지만, 특하면 눈 흘기고, 꼬집고, <u>걸핏하면</u> 때리기가 일쑤였어요.	걸핏하면	조금이라도 일이 있기만 하면 곧.
삼디기가 <u>어리둥절한</u> 얼굴로 선생님을 쳐다보았어요.	어리둥절한하다	무슨 영문인지 잘 몰라서 얼떨떨하다.
삼디기가 <u>영거주춤</u> 일어서며 아이들을 흘겨보았어요.	영거주춤	아주 앞지도 서지도 아니하고 몸을 반쯤 굽히고 있는 모양.
“그럼, 이순신 장군 모르는 사람도 있니?” 현진이가 <u>아니꼽다</u> 는 투로 말했어요.	아니꼽다	비위가 뒤집혀 구역날 듯하다.
그 모습을 보니 삼디기는 심사가 뒤틀려 더 <u>어깃장</u> 을 놓고 싶어졌어요.	어깃장	짐짓 여기대는 행동.
“에이참, 할머니. 잘 듣기만 하세요.” 삼디기는 할머니에게 웃으면서 <u>핀잔</u> 을 주었어요.	핀잔	맞대어 놓고 언짢게 꾸짖거나 비꼬아 꾸짖는 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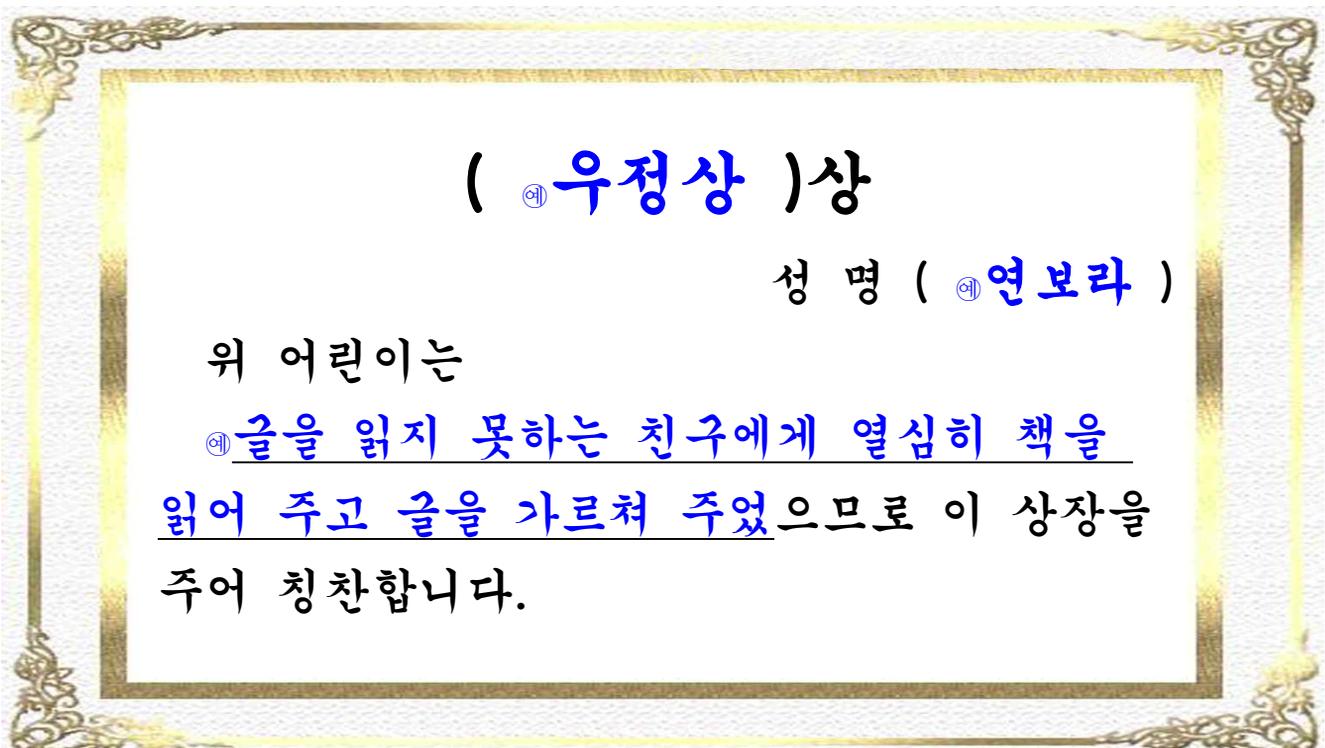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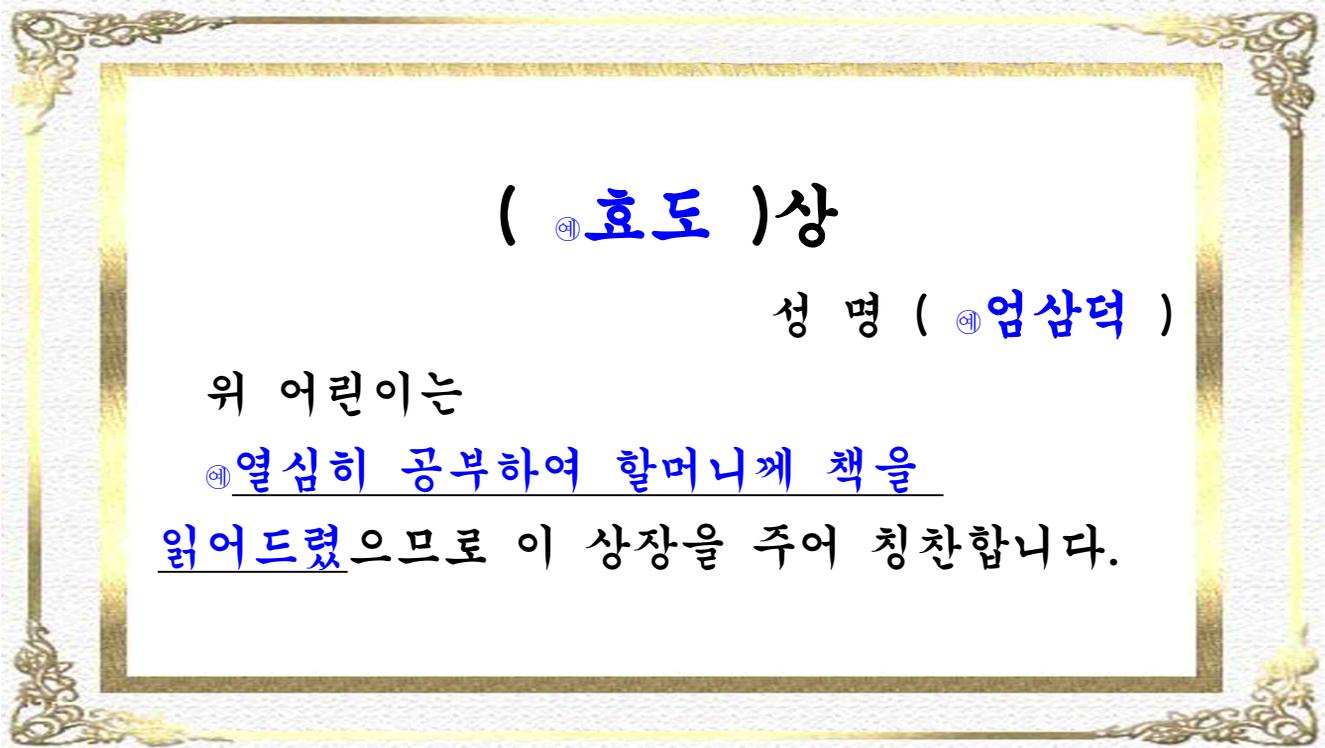
읽기 후 활동

상장 만들기

학년 반 번

이름

★ 「까막눈 삼디기」를 읽고 칭찬하고픈 사람 두 명을 골라, 어떤 상을 주어 칭찬할지 상장을 만들어 봅시다.



 읽기 후 활동

생각 나누기

학년 반 번
이름

★ 다음 물음에 대한 내 생각을 써 봅시다. 자신의 생각과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도 꼭 밝혀 쓰도록 합니다.

친구의 부족함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요?
/ 나보다 부족한 점이 많은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?

예 친구가 글자를 읽지 못하거나 좀 가난하거나 옷을 깨끗하게 입지 못하거나 해도 함부로 무시하고 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. 그런 환경에 처한 것은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이다. 조금 더 이해해 주고,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고,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멋진 친구가 되는 길이다. 그러면 그 친구도 점점 발전할 것이다.

삼디기처럼 한글을 잘 읽지 못하는 친구에게 한글을 잘 가르칠 나만의 방법이 있으면 소개해 볼까요?

예 한글은 어려운 글자가 아니라서 많이 보고, 자꾸 읽으면 쉽게 익힐 수 있다고 한다. 따라서 나는 한글을 잘 읽지 못하는 친구에게 연보라처럼 쉬운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면 친구가 쉽게 한글을 익힐 것이라 생각한다. 그리고 그림 뒤에 글자가 적힌 낱말 카드 등을 이용해 글자 맞추기 게임을 하면 재미있으면서도 쉽게 한글을 익힐 수 있을 것 같다.

 읽기 후 활동

기억에 남는 장면 그리기

학년 반 번

이름

★ 「까막눈 삼디기」를 읽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그려 봅시다. 그리고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며, 왜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 깊었는지 소개해 봅시다.

 가장 재미있었던 장면,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 등 기억에 남는 장면을 떠올려 그려 보세요.

예) 삼디기가 일어나서 책을 읽던 마지막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. 삼디기가 더듬더듬 글자를 읽고, 친구들이 숨을 죽이며 잘 못 읽는 글자를 가르쳐 주는 장면이 조마조마하고 감동적이어서 기억에 남는다. 삼디기도 반 아이들도 가슴을 쓸어내리며 모두 삼디기가 된 것 같이 글자를 읽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였다.

 읽기 후 활동	뒷이야기 꾸미기	학년 반 번
		이름 <input style="width: 100px;" type="text"/>

★ 다음은 「까막눈 삼디기」 마지막 부분입니다. 시간, 장소, 인물 꾸러미에서 낱말을 고르거나 빈칸에 새로운 낱말을 적어 선택한 낱말들로 이어질 뒷이야기를 꾸며 봅시다.

드디어 삼디기가 무사히 책 한 쪽을 다 읽었어요.
 ‘후유!’
 삼디기는 자기도 모르게 가슴을 쓸어 내렸어요.
 ‘후유!’
 반 아이들도 모두 삼디기처럼 가슴을 쓸어내렸어요. 삼디기가 책을 읽는 동안 아이들은 마치 자신이 삼디기가 된 것 같았으니까요.

시간	장소	인물
하교 시간에 겨울 방학이 되어 3학년이 되어 예) 책 읽기를 마친 후	교실 삼디기 집 연보라네 집 _____	선생님 삼디기 할머니 연보라 반 친구들 _____

예)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시며 말씀하셨습니다. / “삼디기, 언제 글자를 익혔니?”

삼디기가 수줍은 듯 말했어요. / “보라가 가르쳐 줬어요.”

선생님이 보라와 삼디기를 일으켜 세우셨어요.

“친구에게 열심히 글자를 가르쳐준 보라와 또 열심히 공부한 삼디기에게 모두 박수를 쳐 줍시다! 선생님은 오늘 정말 감동받았어요!”

아이들이 모두 힘껏 박수를 쳤어요. 삼디기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머리를 굽으며 얼굴을 붉혔어요. 보라는 흐뭇한 표정으로 활짝 웃었어요.

이제부터 삼디기의 별명은 더 이상 까막눈이 아니랍니다.